

나의 수행법

김기현 (중)



화두잡구 사흘째, 스님은 “오 늘부터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만두고자 하는 욕구도 강하게 나타난다”고 했다. 아닌 게 아니라, 그렇게 쏟아지던 잠은 간 데 없이 사라졌다. 이제 공부 가 제대로 되려나보다 하고 마음을 가다듬었다. 오후 무렵부터는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서 통곡하는 사람도 나왔고 여기저기서 울적거렸다. 그러나 그런 변화들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화두 공부 중에 알 수 없이 생긴다는 점에서 모두들 장피합은 없었다. 신기하기조차 했다. 좌복에 앉아 가만히 화두 의심을 했을 뿐인데도 저런 변화들이 몸 안에서 발생하다니. 급기야 저녁부터 뜨거운 눈물이 흘러 내렸다.

그 이후 3일이나 화두만 들면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고,

빠져리게 알게 됐다. 화두 잡구 닷새째, 전주에 있었던 송광사 수련회에서 맞보았던 신기한 현상(오로라같이 날 보호하는 현상)을 스님에게 묻고 화두 공부상의 답이 갈 뻔했다. 그러나 스님은 씩 웃으시며 “좀 더 정진하라”고 했다. 다시 ‘검지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이 누구인지’ 찾았다. “잉어가 강을 거슬러 올라 가다가 폭포를 만나면 그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야 용이 된다”는 스님의 말씀을 상기하면서,

그러자 가슴이 더욱 답답해졌다. 잠도 오지 않았다. 화두를 들기만 하면 왜 그리 눈물이 흘러

쏟아지던 잠 어느 순간 짝 달아나고 화두만 들면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

내가 무슨 몹쓸 짓을 그리 많이 했기에 이리 눈물을 많이 흘리는지. 이 모든 것이 지난 세월 ‘무명(無明)’과 ‘악업’을 씻어내는 눈물이라고 생각하고 참회를 많이 했다. 그런 내 몸의 변화를 스님에게 말씀 드렸다. 그러더니 스님은 그 순간에도 화두를 놓치지 않았는지 되물었다.

“어떤 경계(계)가 오히려 그것에 현혹되지 말고, 참 나를 몰라 답답한 그 마음만을 믿고 나가라. 지금 이 순간 눈물이 왜 흘러내리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순간에도 화두 의심을 했는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다시 자세를 고쳐 앉고, ‘머리가 아닌 온몸으로 답을 찾으라’고 말하고 화두를 생각했다. 그리고 내 몸속에서 움직이는 것으로 호흡과 장기들(특히 심장의 박동)이 있음을 알고 온몸으로 답을 찾는 것은 ‘내 몸을 관찰하면 되겠구나’라 여기고 다시 집중했다. 그러나 머리만으로는 화두 공부를 절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수일이 지나기 전에

내리는지 손수건이 축축해졌다. 비몽사몽간에 화두 공부하다가 날이 밝았다. 화두잡구 옛새 짝이 됐다. 한 참을 의심하고 또 의심했는데, 갑자기 알 수 없는 어떤 기운이 형성됐다. 가만히 관찰하니 실로 잉어가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듯이 알 수 없는 기운이 내 몸 안에서 위로 솟구쳤다. “바로 이것이구나!” 순간 기뻐했다.

그런데 그 기운이 솟구치다 말고 중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 이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 한 참 올라가다가는 자꾸 떨어졌다. 스님은 “한 번 떨어지면 처음 화두를 받았을 때처럼 다시 화두를 들라”고 했다. 지금껏 찾아 올라온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랴니 야속하기만 했다. 결국 오늘도 답을 찾지 못하고 하루가 흘러갔다. 옛 스님들이 깨침을 얻지 못하고 하루하루 지면 통곡하며 운다는 심정을 조금은 알 것 같았다. (계속)

변호사

‘육조단경’이 각광받는 이유와 그 핵심

‘마음’ 정체 밝혀주고 공부법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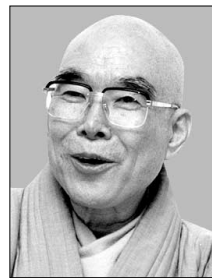
“일체만법이 모두 다 자기의 몸과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어찌 자기 마음을 좇아 단박에 진여의 본성을 나타내지 못하는가? 내 본래의 근원인 자성은 청정하다. 마음을 알아 본성을 보면 스스로 불도를 이루게 된다.”

‘깨달음’ 선언. <육조단경(六祖壇經, 이하 단경)>의 핵심인 ‘불성의 자각사상’을 담은 한 구절이다. 이는 ‘내가 바로 부처’라는 육조 혜능 선사의 강령한 메시지이기도 하다. 또 달마대사로부터 육조에 이르기까지 한결 같이 흐르는 ‘자성귀의(自性歸依) 사상의 집약이다.’

<단경>의 실천법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다. 일체선악에 따른 ‘죄의 성품(罪性)’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과 본래 자성이 청정함을 통칭하는 ‘무상참회(無相懺悔) 법을 일러주고 있다. 그야말로 마음의 정체를 살살이 밝혀주고 앞으로의 공부 길까지 소상히 제시하고 있어, ‘마음공부의 로드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수행의 길잡이가 되는 <단경>이 최근 출 · 재가자들에게 많이 읽히고 있다. 서울 불교전문강당 산하 경전연구위원회가 고우 스님(봉화 각화사 선덕)을 강사로 초빙, 오는 9월 11일부터 6개월간 매월 둘째 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육주동 대승암에서 <돈황본 육조단경> 강좌를 연다(011-497-8018). 또 서울대 교수불자모임 불이회 우희중 교수(02-880-1262)는 매월 둘째 주 일요일 서울 관악구 고시촌 정혜사에서 <육조단경 강설>을 열고 있다. <단경>이 선 수행자들에게 각광받는 이유와 그 핵심은 무엇인지와 고우 스님, 성본 스님, 우희중 교수, 김윤수 부장판사 등에게 들었다.

중도·연기사상 전체적으로 일깨워



‘돈황본 육조단경’ 강의하는 각화사 선덕 고우 스님

<단경>에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중도·연기사상이 녹아있다. 물론 모든 경전이 중도·연기를 언급하고 있지만 풀어내는 방식이 논리적·이치적이다. 반면 <단경>은 선(禪)체험을 바탕으로 수행의 내용과 방법을 오롯이 담아내고 있다. 때문에 <단경>은 출 · 재가자들이 중도·연기사상을 선으로 체험하는데 유일한 경전이자 선어록이다.

중도·연기는 ‘양변을 여의라’는 뜻이다. 즉 ‘나다 너다’라는 이원적 사고를 벗어나라는 말이다. <단경>은 이처럼 주객을 초월한 자리를 ‘불성을 본다’고 표현한다. 또 ‘본래 성품을 본다’고 한다. 혜능 선사가 <금강경>의 ‘응무소주이생기심(應無所住而生其心)’, 즉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는 구절에서 큰 깨달음을 얻은 것은 양변을 여린 자리가 바로 불성임을 보았다는 의미다.

그래서 중도·연기가 <단경>의 핵심이다. 갈등, 대립, 투쟁의 극단적 삶을 평화적이고 자유로운 삶으로 바꿔놓는 지혜인 것이다. 양변을 여린 중도·연기적 삶은 현재 지구상의 종교, 인종, 민족, 이데올로기 등으로 인한 갈등을 치유하는 선적인 처방전이 된다. 내 민족, 내 민족, 내 국가, 내 국가 등으로 갈라보는 시각을, 함께 더불어 산다는 중도적 관점으로 전환시키기 때문이다.

“자기 마음 어떻게 돌아볼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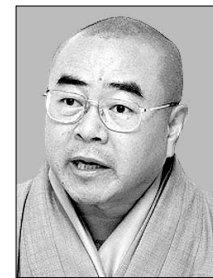
정혜사에서 ‘육조단경’ 강의 서울대 우희중 교수

핵심은 ‘마음보기’다. 즉 내 안의 불성을 보라는 가르침이 <단경>의 논지이며, ‘나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이 <단경>의 처음과 끝이다.

이런 점에서 <단경>은 이미 <유마경> 등의 대승경전에서 설했던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라는 것과 달마대사의 <관심론>과 <혈맥론> 등에서 강조된 ‘직지인심 견성성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상세히 풀어놓은 ‘마음공부의 지침서’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단경>은 ‘깨달음이란 이렇게 저렇게’ 하는 설명에 방점을 두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되돌아 볼 것인가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다. 마음 공부하는 이들에게 그 공부의 방향성을 명확히 짚어주고 있다.

짧고 간결한 <단경>은 마치 할아버지가 옛날 이야기를 자상하게 말해주는 방식으로 개념화된 불교로부터 진정한 부처님의 참뜻이 무엇인지를 일러준다. 이렇게 <단경>은 불성에 대한 직접적인 방향제시를 통해 형식화된 선을 따파하는데 큰 역할을 했고, 특히 마음공부가 왜 중요한 지부터 어떻게 마음을 보라는 것까지 마음공부의 ‘틀’을 잡아주기 때문에 선 수행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수행법의 지침서라 할 수 있다. 다만 너무 상세해 공부하는 이들에게 방해가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단박에 깨쳐 본래 불성 바로 본다”



‘돈황본 육조단경’ 역주한 선문학회원장 성본 스님

<단경> 이해의 말머리는 ‘돈오경성(頓悟見性)’이다. 즉 ‘단박에 깨쳐 본래 불성을 바로 본다’는 것이다. <단경>은 중생심을 마음의 근본자리인 ‘불성’으로 돌아오는 길을 제시한다. 깨달음의 주체가 불성이고, 그 불성의 작용이 지혜라는 것을 강조한다. 불성을 자각해야만 반야의 지혜로 나아갈 수 있고, 자비도 구족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다.

때문에 <단경>은 자각에서 자각으로 끝난다. 망념에 사로잡힌 중생심을 불성으로 전환시키는 자각. 이것이 <단경>의 실천적 언어인 ‘식심견성(識心見性)’이다. 또 ‘지금, 여기, 자기’를 늘 들여다본다는 ‘일행삼매(一行三昧)’다. 그래서 <단경>이 풀어내는 방식은 철저히 실천적이다. 대승불교의 반야와 불성사상이 ‘생활선(生活禪)’의 형태로 녹인 점, 불성사상의 구체적인 실천사상으로 무념(無念)을 중으로 삼고, 무상(無相)으로 체를 삼으며, 무주(無住)로 근본을 삼은 것이 그 실례다.

결국 <단경>은 대승불교의 모든 사상을 선의 실천으로 정립한 선불교의 성전이라 할 수 있다. 반야와 불성사상을 통합, 선수행으로 전개하도록 새로운 선불교의 실천체계를 확립했다. 또 조사선이라는 생활종교를 중국의 대지에 정착시킬 수 있는 사상적인 토대를 확립하게 마련, 선불교의 급자람을 세운 경전이다. 이런 측면에서 <단경>은 선수행의 지침서가 된다.

재가자들에게 생활 속 깨달음 제시



‘육조단경 읽기’ 펴낸 파주시 법원 김윤수 부장판사

육조 혜능은 말한다. 우리는 부처다. 배웠든 배우지 못했든, 지위가 높든 낮든, 재물이 많든 적든, 늙었든 젊었든, 우리가 그 성품을 자각하기만 하면 된다. 때문에 <단경>은 재가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불교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읽으면, 삶의 고통을 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삶의 가치까지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단경>은 마음공부의 탄탄한 교과서가 된다. 선수행을 하는데, 기초적인 불법에 대한 이해를 제공한다. ‘마음은 원래부터 연기적 존재’라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열반경>의 ‘일체중생 실유불성(一切衆生 悉有佛性)’ 즉, 일체 중생은 모두 불성을 지니고 있다는 말처럼, <단경>은 불성에는 남բ이 없고, 불성의 성질은 청정공적하다는 개념으로 선수행의 기틀을 제시해준다. 또 <단경>은 ‘내 마음에 스스로 부처가 있으니 자불(自佛)이아말로 진불(眞佛)’이라면서, 부처를 모든 이들의 마음속으로 끌어들이었다.

특히 <단경>은 재가자에게 ‘깨달음의 가능성’을 열어줬다. 즉 혜능 선사가 15년간 유방행자로 지내오면서 ‘거사도 깨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다. ‘일상사 그대로가 선’이란 <단경>의 메시지가 일상 속에서도 선수행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어 준 셈이다.

정리=김철우 기자

개 천 지 조 화 벽

• 예언에 의한 국내최초 새시대 새미륵시대 여의주시대를 펼치는 천기도량 완성

- 원효대사님의 미륵상부경에 의하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도솔천에서 미륵보살님이 미륵시대를 펼쳐 중생을 구제하신다고 예언
- 미륵보살님은 누구이며 과연 어떻게 미륵시대를 펼친것인가?

- 미륵보살님께서 천상계에서 강림하시어 이제 중생구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 중앙박물관에서 전시한 (2004년 7월 20일 ~ 10월 17일) 미륵보살님의 금동 반가사유상 (국보 78호, 83호)은 미륵시대를 예고한 것입니다.

-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양양미륵님께서 천지조화의 기운을 내리시는 다섯분의 대성존님과 천지조화의 수기를 받으시고 강림하신 일곱분의 연화미륵님과, 삼십삼천, 서른세분의 천왕님과 미륵시대를 펼치오니 천견하시어 소원성취하십시오.

특이 도인, 스님, 보살님, 철학인, 종교인, 기공인 또한 일반인에게 공개하오니 친견, 소원성취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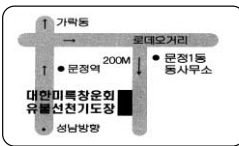
"미륵시대를 전파하라는 천명을 받은 미륵도인, 성산성지에서 오랜 수도를 통하여 천문, 지리학, 천지인 학문과 천지인명의 영통학문에 의한 천리연구로 佛知行 한 미륵선관대도인(天童道師)이 직접 상담

조상천도 업장소멸 인생문제를 천기도법으로... "천기도법"(天氣道法)

- 천기도법에 관심이 있거나 공부하시려 하시는 분
- 사업을 계획하시거나 잘안되는 분
- 질병으로 고통 받는 분
- 집안이 잘 안되는 분
- 천기를 받아 건강하고자 하는 분

예약 및 문의: 02)403-5272

大韓彌勒創運會 儒佛仙天氣道場



“개천구지(開天救地)... 벽도구인(闢道救人)”

환기 9202년 개천 5903년 단기 4338년 불기 2549년 서기 2005년 을유년 새해를 맞이 하여 새시대 새미륵시대 여의주 시대를 펼칩니다.

을유년 새해에는 시공초월하여 미륵인(彌勒人)이 되어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자!

미륵인이란? 과거의 전생업장(육신, 정신업장)을 소멸하고 새롭게 태어나므로 정신과 육신이 하나가 되고 또한 도를 수행(佛,行)함으로써 혁명적인 힘(미륵님의 원력)을 갖고 자기에 맞는 大業과 天業을 대성공하고 나가서는 역사적 사명을 갖고 새시대(미륵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미륵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천기도법(天氣道法)으로 道門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 미륵인이 되면 미륵님의 원력(天氣)과 조상님의 공덕을 받으므로서 어려운 일이 풀리고, 자기분야에서 대성공 할 수 있습니다.
- 道門을 열어 천지조화의 기운(空淸력에너지, 생명에너지)을 받으므로서 건강하게 됩니다.(난치병 치유)
- 자기 스스로 치료함과 동시에 체험의 교정도 자동으로 하게 됩니다.
- 초능력과 약사력이 생기므로 누구든지 치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됩니다.
- 시공초월 함으로서 명산대천을 찾아 헤메이지 않고 천지조화의 기운을 받는다.
- 도술도법(기력, 수인력, 대화력, 약사력, 관음력, 천도력, 용맹력, 지예력, 보살력, 여래력, 성인력)과 육신통(천안통, 천이통, 속명통, 타심통, 누진통, 신족통)이 열리게 되므로 성불할 수 있습니다.

유불선 시공초월하여 道門을 열수있도록 많은 연구와 노력끝에 이치에 맞게, 또 미륵시대를 맞이하고자 유불선을 통하여 완성한 道場으로 초과학적인 인간구제 발전소입니다. 3시간 만에 누구든지 미륵인이 될 수 있도록 도문을 열어드립니다. (百聞不如一見, 百見不如一行)

最上情報心身復生

至寶文化彌勒弘益

21세기 최상의 정보는 내마음과 몸을 다시살려 장생의 신선세계에 동참함이고 지극히 보배스러운 문화는 미륵시대에 부합된 흥익인간 이념을 구현함이니라!